

- ▶ “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[...] 아버지께서는 모든 중
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
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
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” (골
1:17-20)
- ▶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부터, 즉 구원하는 창조주인
하나님의 편으로부터 바라본다.
- ▶ 그러나 그는 예수를 아담이라는 ‘흠으로 빚어진 인간’의 인
간 본성의 측면에서 관찰한다.